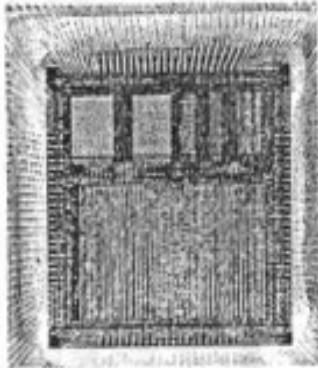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국내 첫 개발

延大부설 설계연구 개가

연세대 부설 아식(ASIC)설계공동연구소(소장李文基교수)는 국내최초로 독자적인 설계기술에 의해 컴퓨터의 핵심소자인 32비트짜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으로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세대 부설 ASIC설계공동연구소가 개발한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명령주소형(RISC)의 최신방식으로 설계되었는데 현재 컴퓨터의 중앙연산장치(CPU)가 이런 방식으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국내기술현황을 보면 일부 연구소와 기업에서 8비트급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설계하고 있으며 16비트급 이상에서는 외국기술에 의존하여 제작하고 있다.

가르세로 90nm 크기의 이 마이크로프로세서는 20메가헤르츠의 주파수에서 초당 2천만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졌으며 14만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고 있다.

△沈載律기자